

제7장 코즈모폴리터니즘과 이웃사랑

I. 주제(Thesis):

“내가 나의 신을 사랑할 때 나는 무엇을 사랑하는가?” – Augustine

II. 문제점(Problems):

- 탈정치화 되고 낭만화 된 이웃사랑에 대한 비판적 성찰 필요
- 새로운 사유(방식)의 필요성: 정형화된 답이 아닌 새로운 시각/질문

III. 논점(Argumentation):

1. 나는 어떤 신을 믿고 있는가? / 종교란 무엇인가?
 - 1) 신을 믿는 신앙인이 된다는 것의 본질은 무엇인가?
 - 모든 인간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'앎' ⇒ 타자에 대한 '사랑/연대/환대'를 실천하는 '삶'
 - 2) '신을 사랑한다'는 말에 내포되어 있는 질문: “이 세계에서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, 내가 헌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, 어떠한 사람들인가?”(p.206)
 - 3) 예수는 소위 '종교적인 것-인간적인 것', 또는 '성-속'을 이분법적으로 보는 시각을 단호히 거부한다.(p.206)
 - 4) 종교는 이웃 사랑에 관한 것이며, 그들에 대한 환대와 책임성에 관한 것이다.(p.230)
2. 누가 나의 이웃인가?
 - 1) 어떤 시선으로 '타자'를 바라볼 것인가?
 - 진정한 '타자'의 회복: 사물화-대상화될 수 없는 타인의 고유성('타인의 얼굴'-Emmanuel Levinas)과 마주함
 - 타자를 다양한 사회/문화/정치적 표지 이전에 신이 부여한 '새로 태어남'(natality)의 가능성을 지닌 존재로 보아야 한다.(p.227) – 개별적 인간의 유일성과 독특성
 - 모든 인간을 우주 시민/평등한 구성원, 개별성(singularity), 무수성(plurality)을 지닌 존재로 바라봄(p.230)
 - 2) 이웃/형제 개념의 확장
 - 히브리 전통: 이웃(형제)= 동족: 배타적
 - 예수: '원수 사랑' – 사랑/환대의 대상이 종족/종교의 범주를 넘어 '모든 이들'에게로 확대(p.209) ⇒ '원수'를 '이웃'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하는 정언적 명령(categorical imperative). 즉 나 자신과 '동일성'을 지닌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, 그 동일성을 넘어서서 '다름'(alterity)을 지닌 사람들, 심지어 '적대적 타자'에게까지 확장해야 함(p.211)
 - 필요성과 불가능성: 종교에 대한 근원적 물음과 만나는 자리(p.208)
 - 3) 호모 사케르(homo sacer) – 권리 없는 존재, 얼굴 없는 타자, 개별적 존재가 아닌 복수적 존재(p.226)
 - 4) 다양한 이웃의 존재를 '아는 일'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신학적/신앙적 과제이다.(p.229)
3. 무엇이 '사랑함'인가?
 - 1) 진정한 사랑은 '교환적 계산성'을 훌연히 넘어서서 자신을 내어주는 '무한한 기투'(企投; project)(p.208)
 - 2) 자기사랑과 이웃 사랑
 - '나'는 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엄성을 지닌 존재라는 자각 ⇒ '너'(타자) 속의 이러한 사실들도 받아들여야 한다. (p.211)

- 3) 나와 타자 속에 있는 '네이털리티'(Natality)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
 - 네이털리티에 대한 '믿음' - '과거'에 드러난 모습에 고착된 '나' 또는 '타자'가 아니라, 새로운 존재로 끊임없이 태어날 수 있는 '희망' ⇒ 자신 or 타자에 대한 '사랑'을 가능하게 한다.(p.215)
- 4) 관심과 책임: "무관심은 인류에 대한 범죄의 시작", "종교란 책임성이다. 그렇지 않다면 아무것도 아니다." (Jacques Derrida)

4. 사회·정치적 담론/실천으로서의 이웃 사랑

- 1) 이웃 사랑의 탈낭만화, 정치적인 접근 필요
 - '이웃 사랑'의 행위는 단순한 개인적인 자선이나 또는 친절함의 차원을 넘어서서, 제도적이고 정치-사회구조적인 '권력'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.(p.209)
 - '이웃'의 범주를 '누가-어떻게' 규정하는가? '사랑'의 행위를 '누가-어떻게' 규정하는가? (p.219)
 - 예수의 이웃 사랑 명령 역시 철저히 '사회정치적' 담론이며 실천에 관한 것이다.(p.225)
- 2) 이웃 사랑과 정의 - 인간으로서의 권리(p.210)
 - 정의 의식이 부재한 '자선'은 시혜자와 수혜자 사이에 '윤리적 위계'를 만든다.
 - 이웃 사랑은 자선을 넘어서서 '정의'와 한 인간으로서의 '권리' 문제로 귀결시켜야 한다.
 - ⇒ 현대 사회에서 '이웃 사랑'의 가능성은 정치제도적 구조(사회보장제도 or 건강보험제도)를 통해서 비로소 가능해진다는 역설적인 모순
- 3) 현대의 '호모 사케르'(homo sacer)는 누구인가?
 - 권리 없는 존재(rightless existence), 얼굴 없는 타자, 개별적 존재가 아닌 복수적 존재
 - 어떻게 이들을 나/우리의 진정한 '이웃'으로 바라보며, 그들의 이웃이 될 수 있을까?

IV. 평가(Critique)

- 1. 고정된 정답 찾기가 아닌 사유 방식의 전환(비판적 성찰/새로운 물음 묻기)이 필요하다.
 - 신 이해, 정의, 이웃(타자), 사랑함에 대한 '탈근대적(postmodern) 사유'와 우리 교회 '신학 다시하기'(doing theology anew)를 연관하여 생각해보자.
- 2. 내(우리)가 '이웃/타자'를 대하는 태도는 어떠한가? 의식적/무의식적으로 그들의 범주화시키고, 표지를 붙이고, 위계를 설정하곤 하지 않은가?
- 3. 코즈모폴리터니즘 담론의 '환대', '이웃사랑'은 위계적 관계를 넘어서 있는가? '사회적/정치적 약자'들에게 이 담론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?
- 4. 오늘로 2주기를 맞는 세월호 사건을 "죽음의 정치"(necrophilic politics)와 "생명 사랑의 정치"(biophilic politics)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.
 - "세월호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국가적 '계층차별주의'와 그에 따른 '생명위계주의'가 빚어낸 참사였다." ("세월호를 기억한다는 것" 강남순, 경향신문 칼럼-4/14/2016- 중)
- 5. '필요성'과 '불가능성'이라는 역설적 딜레마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? 저자는 이 책에서 '끊임없이', '지속적인' 등의 부사를 유난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코즈모폴리터니즘 이웃사랑 위해 전제되는 것이 바로 이 부사들과 같은 태도(믿음)가 아닐까?